

“장점마을 감사원 결과 수용”

익산시, 마을주민 치유와 재발방지 후속대책 추진키로 관련공무원 1명 보직 해임 · 2명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

익산시가 지난 6일 감사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의 뜻을 전하며,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익산시를 대상으로 (주)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신고내용과 달리 사용한 데 대한 지도감독 여부와 폐업 후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업신고 후 폐기물 처리확인 소홀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된 당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해당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였으며, 익산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인허가 업무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주)금강농산이 2009년 5월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부적절하게 수리함으로써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고온건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주)금강농산이 제출한 변경신고에는 퇴비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정박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금강농산(폐기물처리업체)은 연 2회 정기 점검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단 2회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수리의 부적절과 점검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서 부적절 변경 신고로 지적된 주정박(술 찌꺼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암발생 원인물질로 발표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과는 다른 물질로서 마치 주정박이 발암 물질인 것처럼 시민들

이 오해 할 수 있게 지적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연초박의 위험성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이 미비하였음에도 금번 감사가 익산시의 폐기물업체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주)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위탁 처리해 근본 원인을 제거한 KTC의 책임소재, 재발방지를 위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비료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정비에 대해 지적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익산시는 장점마을 사태 등을 거울삼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여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환경관련부서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환경사업 단속을 위한 환경특수장계를 신설하여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점마을 후속대책으로 3개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점마을 환경재난의 원인이 된 (주)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 제거와 저수지·논 등 주변 환경 오염토양 제거 등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을 완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12일 상황실에서 수상자와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25회 익산시민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익산 빛낸 ‘시민대상’ 시상

문화예술 등 6개 분야 선정

익산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대상’ 수상자를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는 12일 상황실에서 수상자와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25회 익산시민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마다 지역을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해 매년 5월 10일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같이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 ▲문화체육대상 김영규(72),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발전에 앞장선 ▲산업대상 전병곤(67),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활동을 전개한 ▲사회봉사대상 송현삼(64), 시어머님을 극진히 보살피는 등 미풍양속을 실천한 ▲효행대상 손민자(54),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농업대상 김근삼(71), 학교문화 개선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한 ▲교육대상 송태규(59) 등 6인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익산=장양원기자

또한 익산역 앞 ‘별배강’을 모티브로 ‘역전환커니막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전국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주)전예프앤씨 소종근(37) 대표이사에게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특별감사패를 시상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고 희망찬 도시로 익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오신 분들이다”며 “앞으로 시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정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1986년부터 올해까지 137명의 지역발전엔 걸인한 자랑스러운 시민을 ‘익산시민대상’으로 선발했다.

시민대상은 올해 초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시민의 장’에서 ‘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문화체육, 산업, 사회봉사, 효행, 친환경, 농업, 교육 등 7개 분야로 수상분야를 조정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 순항

군산시가 추진하는 도내 최초 수요자 맞춤형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순항 중에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지난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 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현재 사업인정 고시 절차 진행 중에 있다.

그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어 오는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후 입주자 모집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하반기 입주가 이뤄

질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군산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국비 149억 등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오픈동 900·40번지 일원(삼학주공 아파트 뒤쪽)에 영구임대주택 150호(전용 26㎡)와 복지시설 1,500㎡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민간기관 손잡고 소외층 지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등

군산시가 민간기관들과 손잡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지원원 펼쳐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12일 드림교회(담임목사 임만호) 등 4개 민간 기관(드림교회, 금강노인복지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자원봉사센터)과 함께 저장강 박종으로 집안 가독 생활쓰레기를 쌓아두었던 독거노인 가구의 쓰레기 수거 및 소독작업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가구는 수년간 집에 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위험과 위생 문

제가 반복되었던 가구로 청소지원에 대해 도움을 거부했지만, 참여기관들과 함께 설득한 끝에 청소를 결정해 당일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5톤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또한, 해당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배와 장판 등을 새로 해드리고, 병원치료 및 상담등을 병행하여 쓰레기를 적치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신경 쓸 예정이다.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문제를 공무원과 민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관리시스템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



군산시는 12일 4개 민간 기관(드림교회, 금강노인복지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자원봉사센터)과 함께 독거노인 가구의 쓰레기 수거 및 소독작업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수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쌍용에가~은파간 도로개설사업 공정률 40%

쌍용에가 아파트와 은파유원지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는 쌍용에가 아파트에서 은파유원지간 도로개설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자해 현


재 쌍용에가@~은파간 도시계획도로 L=0.7km를 개설중이라고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 2019년 10월에 1공구를 27억원을 투입 도로개설(L=150m)을 완료했고, 현재 2공구는 125억원을 투입 도로개설(L=480m)을 추진중으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차질없이 도로개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개설 인근 부지에 동산중학교가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되어 있어 급회 도로개설로 인한 동산중학교 신축공사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지역 소식통

‘무궁화 익산축제’ 개최

지역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무궁화꽃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익산에서 개최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어서 코로나19 맞춤형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맞춤형 나라꽃 무궁화 익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 2일 산림청 공모로 선정돼 추진하는 행사로 시민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대신 유치원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궁화를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참여, 전자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우선 무궁화 체험은 유치원, 초등1~2학년 무궁화 종이접기 체험(5,600명), 초등3학년 무궁화 석고방향제만들기 체험(1,200명), 초등4학년 무궁화 불룩만들기 체험(1,200명), 초등5~6학년생(2,000명) 무궁화에 코백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해 학생 1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시민의 장 후보

21일까지 의견 수렴

군산시가 시민의 장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후보자의 의견 수렴에 들어가며 심의 수상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제8회 군산시민의 날과 관련해 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 6일까지 공모를 통해 9개 분야 중 6개 분야 11명의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 접수를 마쳤다.

이후 수상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위원회 심의 시 수상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홈페이지 소통참여→시민광장 플랫폼→설문조사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민의 장 수상후보현황은 문화예술체육장 4명, 애환봉사장 2명, 산업장 2명, 노동장 1명, 시민안전장 1명, 교육장 1명이며 각 개인별로 공적요약서가 첨부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참고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